

# 光山金氏 滄洲 家系の 淸州 世居와 金元澤

申 榮 祐\*

- I. 머리말
- II. 光山金氏 文元公派의 連山 世居와 家系
- III. 光山金氏 文元公派 滄洲子孫의 淸州 世居와 金元澤
- IV. 金元澤의 아들 4兄弟와 仕宦
- V. 맺는말

## I. 머리말

朝鮮王朝에서 忠淸道는 나라의 중심에 있으면서 三南의 한 축을 이루는 지역이었다. 삼남은 나라 인구가 가장 많고 산물이 풍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왕조가 의존해온 지역이기도 했다. 충청도의 주요 군현은 충주와 청주, 그리고 공주와 홍주였다. 조선왕조에서 충주와 청주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道의 이름을 불러왔는데,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아울러서 통일국가를 세운 이래 충주와 청주에 작은 서울이라는 의미인 중원경과 서원경을 설치하였다. 이는 지역 통치의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나라를 아우르며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남한강의 물길이 나라 살림에 긴요한 혈맥의 역할을 했을 때에 충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남북을 꿰뚫는 중앙부로서 여러 기능을 하였다. 신라와 고려에 이어 조선에 와서도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교통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충주의 경내를 어느 군현보다 넓게 잡아 지역통치의 핵심으로 삼았다.

시대가 바뀌어 육상도로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충청도의 중심에 자리 잡은 청주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교통로에서 청주를 관통하는 길<sup>1)</sup>은 서울에서 삼남을 잇는 핵심 도로였다.<sup>2)</sup> 철도가 대량 수송의 이점에 따라 가장 편리한 교통의 수단이 되자 경부철도의

\* 충북대학교 사학과

- 1) 『經世遺表』 제3권, 「天官修制」. “생각건대, 남쪽 도적이 추풍령을 지나서畿內로 침범하게 되면 황간에 와서 드디어 두 길로 갈라진다. 한 길은 靑山·報恩을 지나서 淸州로 나오고 한 길은 沃川·文義를 지나 淸州로 나와서 京城에 도달한다. 이리하여 청주는 중도의 요충이므로 방어사를 겸하도록 하는 것이다.”
- 2)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6년 2월 5일자. “栗峯道の 所管인 淸州의 栗峯驛·雙樹驛·猪山驛, 鎭川縣의 台郎驛·長陽驛, 文義縣의 德留驛, 淸安縣의 時化驛과, 連原道の 所管인 忠州의 連原驛·丹月驛, 延豐縣의 安富驛·新豐驛, 陰城縣의 用安驛·坎原驛, 槐山郡의 仁山驛과, 黃江道の 所管인 淸風郡의 黃江驛·水山驛·安陰驛, 丹陽郡의 長林驛·令泉驛, 永春縣의 吾賜驛, 堤川縣의 泉南驛 총 27驛을 합하여 한 도로 하고, 栗峯道라고 칭하여 京畿忠淸右道 察訪으로써 이를 맡아 보게 하소서.”

인근에 있는 청주의 주요성은 더욱 커졌다.

조선시기 이래 청주에서 살아온 사람들 중에는 중요한 인물이 많았다. 栗谷 李珥처럼 청주목사로 부임해서 선정을 베푼 관료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유생들이 배출되어 나라의 동량이 되기도 했다. 또한 혁명과 같은 과격한 방법으로 사회변화를 꾀했던 사람이 나왔는가 하면, 학문에 힘을 기울여서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도 있었다.

청주를 근거로 활동을 한 인물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을 찾아서 그 행적을 밝혀내는 일은 지역사 연구에서 과제가 되어 있다. 여기서 살펴보려는 四九齋 金元澤(1683~1766)도 청주의 역사인물로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김원택은 조선 禮學의 태두인 沙溪 金長生(1548~1631)의 고손자가 된다. 그리고 영조대의 영의정으로 오래 재임했던 金相福(1714~1782)의 아버지였다. 김원택은 청주목사와 한성관운을 지냈으며, 그 幽宅은 2세기를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청주 산남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 청주 산남 일대가 도시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오랜 유택을 移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03년 4월 10일 이장을 위해 유택에 안치되어온 중후한 목관을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18세기의 우리 옷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김원택이 생전에 입었던 옷뿐만 아니라 부인 청송심씨, 첫째머느리 한산이씨, 셋째 아들 金相直과 그의 부인 전주이씨 5기의 묘에서 380여점의 복식이 나왔다. 이 옷들은 후손의 뜻에 의해 충북대 박물관에 기증이 되었고<sup>3)</sup>, 박물관에서는 잘 갈무리하고 보존처리를 한 후 특별전을 열었다.<sup>4)</sup>

김원택의 유택에서 나온 옷들은 18세기의 선인들이 정성을 다해 마름질하고 한땀 한땀 기운 귀중한 문화유산이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옷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문화재에는 만들고 사용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담겨있다. 새옷에서는 주인의 인품과 취향을 찾을 수 있고, 헌옷에서는 주인의 삶에 들어있던 애환이 배어나온다. 옷감의 종류나 질, 그리고 바느질 솜씨에서는 시대상과 집안의 품격이 드러나기도 한다. 여기서 光山金氏家의 가계를 찾아보려는 것은 청주를 근거로 활동했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을 밝히는 동시에 그러한 문화유산과 시대의 모습을 연결하는 단초를 찾기 위한 것이다.

## II. 光山金氏 文元公派의 連山 世居와 家系

김원택의 선대인 김장생은 연산에 세거하였다. 광산김씨는 신라의 왕자 興光을 시조로 하는 대표적인 가문의 하나로서 일명 ‘光金’으로 부르기도 한다. 광산김씨는 조선왕조에 관직 충원의 등용문이었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거나 고위 관직자를 배출한 가문 중 많은 수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면 제5위에 해당한다고 전해진다.

3) 종손인 서울방송의 김선갑씨와 문중 어른들의 해안에 의해 조선후기 복식사 자료가 가장 많은 박물관의 하나인 충북대 박물관에 기증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4) 특별전 도록 『한성부 관운 김원택 묘역 출토복식』에 여기서 나온 복식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도록에 실린 「四九齋 金元澤의 家系」를 바탕으로 확대 보완한 것이다.

顯職을 연이어 맡았던 가문은 閥閥을 이루어 양반가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文元公 沙溪 金長生을 거쳐 金元澤의 아들대에 이르기까지 변화했던 가계를 보면 왜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간 金元澤 一門의 계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 19세 若菜 (공민왕 - 태조 - 정종)  
忠淸道 都觀察黜陟使  
連山에 정착
- 20세 問 1373~1393 (태조)  
예문관 검열
- 21세 鐵山 1393~1450 (세종)  
사헌부 감찰
- 22세 國光 1415~1480 (세종 - 세조)  
의정부 우의정 좌의정, 광산부원군  
/謙光 - 좌참찬, 淸白吏
- 23세 克忸 1436~1480 (성종)  
사간원 대사간
- 24세 宗胤 1474~1535 (중종)  
울진군수, 진산군수
- 25세 鎬 1505~1561 (연산군 - 명종)  
지례현감, 한성부 서윤
- 26세 繼輝 1526~1582 (명종 - 선조)  
영남 안찰사, 사헌부 대사헌
- 27세 長生 1548~1631 (선조 - 인조)  
사헌부 장령, 형조참판
- 28세 槃 1580~1640 (선조 - 인조)  
이조정랑, 대사간, 대사헌, 한성우윤, 이조참판  
/集 (1574~1656) 신독재  
사헌부 대사헌, 이조판서,
- 29세 益熙 1610~1656 (인조 - 효종)  
이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 30세 萬均 1631~1675 (효종 - 현종- 숙종)  
세자시강원 보덕, 승문원 좌부승지
- 31세 鎭玉 1659~1736 (숙종 - 영조)

5) 『光産金氏派譜』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안동부사, 경주 부윤, 호조 참의, 동부승지, 강원감사  
32세 元澤 1683~1766 (숙종 - 영조)  
청주목사, 한성부 판윤  
33세 ① 相德 1711~1772 (숙종 - 영조)

- ② 相福 1714~1782  
이조판서·호조판서·예조판서·한성판윤·홍문관제학,  
우의정, 영의정
- ③ 相直 1716~1803  
사복시 판관
- ④ 相肅 1717~1792  
양근군수, 공조정랑, 첨지중추부사

광산김씨가 충청도에 처음 정착하는 것은 고려말 조선초에 활약하며 忠淸道 都觀察黜陟使를 지낸 19세 若菜代라고 한다. 『光山金氏派譜』에서는 약체가 忠淸道 連山에 정착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sup>6)</sup>

“先祖考의 諱는 若菜 ---- 太宗初에 資憲大夫 刑曹判書에 올랐고, 갑신 2월에는 忠淸道 都觀察黜陟使를 拜하였는데, 政務가 淸平하여 吏民을 便케 하였다. 連山의 居正村에 定居하여 그 傳함이 지금에 이르니 古宅이 依然하다.”

충청도에 도관찰사로 부임해서 연고를 맺은 약체가 연산 땅에 恒産을 만든 다음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살기 시작한 동리가 居正村였다. 家乘에는 高井里로 나오는데 당시 정착한 마을은 아니었다. 현재 宗家의 위치가 처음 정착했던 집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조선왕조 시기에는 이곳이 거정리에 속해 있었다. 고정리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面里洞을 廢合할 때 連山郡 內赤面의 牛首里·居正里·高井里의 일부를 통합해서 만든, 새로운 行政洞名이다.<sup>7)</sup>

연산이 광산김씨 세거지로 가문이 융성하게 된 功은 20세 問의 부인인 陽川許氏<sup>8)</sup>의 희생에 있다. 양천허씨는 28세 集이 작성한 묘갈명처럼 연산의 광산김씨 一門이 가계를 이어 나가도록 기초를 쌓는다.

“아, 여기가 우리 先祖妣 許氏의 묘소이다. 先祖考의 묘소는 長湍에 있으니, 連山에 장례를 모시는 것은 우리 선조비로부터 시작되었다. ----- 선조고께서는 젊은 나이로 과거에

6) 『光山金氏派譜』 乾.  
7) 越智唯七,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8.  
8) 『愼獨齋全書』 제7권, 「先祖妣 贈貞敬夫人 陽川許氏 墓碣銘」

급제하여 翰院에 뽑혀 들어갔다가 얼마 안 가 세상을 뜨셨다. 그러자 선조비께서 나이 겨우 17세에 의지할 남편을 잃었으므로 부모님이 가엾게 여겨 재가를 시키려고 상대와 약속까지 다 해 놓으셨다. 그러나 우리 선조비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처음 아시자 곧바로 孤兒를 업고 시부모가 계시는 시가로 달려와 일생을 마쳤으며, 나라에서도 그 일을 알고 旌閭를 하여 지금까지도 그 편액이 길가에 밝게 걸려 있고 그 사적이 마치 어제 일이나 되는 듯이 역사에 빛나고 있다.”

또한 28세 集은 묘갈명<sup>9)</sup>에서 장단에 있던 問의 묘를 連山縣 牛首里의 高井山에 이장하였는데 바로 그 자손들이 그 아래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묘갈명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이 즉 孤兒라고 표현되었던 양천허씨의 아들이 鐵山이고, 다시 그 아들이 좌의정에 오르는 22세 國光이다. 국광대에 와서 연산의 광산김씨는 왕조의 최고위 관직인 정승 반열에 들어선 당당한 班家가 된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양반의 지체를 논할 때 4대에 걸친 관직 역임을 우선하였다. 父·祖·曾祖와 外祖 4대가 관직을 역임해야 양반 지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연산의 광산김씨 가계를 보면 15대에 이르도록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대가 없다. 즉 김원택과 그 아들대에 이르도록 이 일가는 관료로서 君王을 宿衛했던 명문에 속했다. 조선왕조에 仕宦을 하기 시작한 이후 자자손손 이어지면서 모든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예외 없이 관직을 역임하고 있다. 이 가계를 보면 문벌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과정을 보는 듯하다.

조선왕조의 宦路는 당사자의 뛰어난 학문 성취와 출중한 역량을 토대로 한 위에 가문의 후광이 비취져야 평탄한 법인데 광산김씨 사계 집안의 가계도는 이런 면에서 世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그러한 지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여러 세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여러 대에 걸친 顯職이고, 둘은 뛰어난 學德이다.

22세 국광은 世宗朝에 문과에 급제하여 出仕한 뒤 이시애의 난을 평정해서 적개공신이 되었고, 世祖가 “국광 같은 사람은 참으로 문과 무를 겸비한 재사이다.”라며 총애하였다.<sup>10)</sup> 成宗朝에는 좌의정에 오르고 光山府院君에 봉해졌다. 그 같은 정승의 위광이 직계 증손에 이르도록 음덕을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었다. 국광의 아우로서 개성유수·경상감사·예조판서·좌참찬을 지낸 謙光은 淸白吏로 이름이 올라 후대의 귀감이 되었다.

조선왕조는 유학을 國定敎學으로 삼아 나라를 운영하였다. 官人도 학문이 있어야 존경을 받고 班家 간의 교류에서 일정한 지위가 정립되는 사회였다. 마침내 광산김씨 가계에서 학문으로 일가를 이루는 자손들이 배출된다. 26세 繼輝가 학문으로 이름을 떨치자 이어 아들 長生, 孫子 集까지 3대에 걸친 재사가 나오는 것이다.

黃岡 金繼輝는 명종 4년 庭試에 장원급제를 하여 出仕를 화려하게 시작하였다. 관직은 흥

9) 『慎獨齋全書』 제7권, 「先祖考 藝文館檢閱 贈議政府左贊成府君 墓碣銘」

10) 『연려실기술』. 또한 “翼成公 黃喜가 그를 한번 보고 큰 인물로 인정하여 자기 아들 少尹 保身의 딸로 아내를 삼아주었다. 항상 말하기를, ‘金生은 작게 성취할 사람은 아니다.’ 하고 그를 소중히 여겨 갖을 쓰지 않고는 대하지 아니하였다. 《사가집(四佳集)》”고 한다.

문과 직제학·사간원 대사간·평안도 관찰사·사헌부 대사헌·예조 참판에 올랐다. 이 시기는 東西 分黨이 나뉘어져서 후대에 파란을 일으키는 단초를 만든 시기였지만, 계획은 율곡 이이와 더불어 당대의 현관으로 조정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었다. 선조 14년에는 明에 辨誣奏請使로 가서 왕실의 宗系를 개정해 줄 것을 청하는 사신의 책무를 맡기도 한다. 당대의 일급 名賢들인 思庵 朴淳·高峰 奇大升·栗谷 李珣와 함께 仕宦하며 절친하게 지냈고, 정철·윤두수 등과도 死生之交라는 평을 듣도록 돈독한 관계였다.

연산의 광산김씨 가문은 27세 사계 김장생에 와서 영예의 정점에 서게 된다. 장생의 벼슬은 이름보다 높지 않았다. 通禮院 引儀·定山縣監·安城郡守·益山郡守·鐵原府使·司憲府 掌令·同知中樞府事에 그치었다. 하지만 학문으로 스스로 오른 지위는 우뚝했다.<sup>11)</sup>

장생은 “어린 시절부터 몸가짐이 장중하여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장난질도 하지 않아 식자들은 이미 德器가 될 인물임을 알았다.”고 한다. 10세에 龜峯 宋翼弼(1534~1599)의 문하에 들어가서 四書와 近思錄 등을 배워 성리학의 기초를 다졌는데 송익필은 성리학과 예학에 통했던 학자였다.

20세 무렵에는 栗谷 李珣의 문하에 들어갔다. 이때 이이는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 石潭에 가서 청계당을 짓고 후진을 가르치고 있었다.<sup>12)</sup> 장생은 자주 海西로 찾아가서 그 문하에 머물면서 道學에 관해 자세히 들었으며 또 禮學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다. 이이는 이황과 더불어 조선 유학의 쌍벽을 이루는 학자로 성리학만 고수한 것이 아니라, 불교와 老莊 哲學을 비롯한 諸子百家의 학설과 陽明學 등에 대한 이해도 깊었다.

이 같은 대학자들에게 배운 장생은 예학에서 발군의 기량을 발휘했다. 1583년 첫 저술인 『喪禮備要』 4권을 비롯해서 『家禮輯覽』·『典禮問答』·『疑禮問解』 등 禮書를 잇달아 펴냈고, 王室의 儀禮에 관해 正道로 생각하는 바를 적극 역설하였다. 따라서 예학의 泰斗라고 일컫게 되었다.

장생은 法治로 다스리지 못하는 心性을 禮治로 순화시켜서 규범에 의해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과 학문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門人은 宋時烈·宋浚吉·李惟泰·姜碩期·張維·鄭弘溟·崔命龍·金慶餘·李厚源·趙翼·李時稷·尹舜舉·尹元舉·崔鳴吉·李尙馨·宋時榮·宋國澤·李德洙·李景稷·任義伯 등인데 당대의 기호지역 명사들이었다. 장생의 예학은 이조판서를 지낸 아들 集이 계승하여 父子가 文廟에 配享되는 전에 없는 영광을 누렸다.<sup>13)</sup>

예학이 조선중기에 이처럼 주목되었던 것은 내외 환란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이 시기에 壬辰·丙子 兩亂을 겪고, 光海君의 廢位와 仁祖反正이 일어났으며, 李适의 난이 발생하였다. 김장생과 김집 父子는 전란 속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奮鬪했던 일선 관료로 지

11) 김장생에 관한 연구는 가계와 경학, 또는 예학과 인물성론 등 다양하다. 생애에 관한 연구는 韓基範, 1989 「沙溪 金長生의 生涯와 禮學思想」(『백제연구』 20집)이 자세하다.

12) 『백사집』 제4권, 「栗谷先生碑銘」. “公이 海州에 있을 적에는 누차 조정에서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날마다 학자들을 가르치니, 학자들이 원근에서 모여들었다.”

13) 東國 18賢에 父子가 나란히 올라 文廟 配享되기는 김장생과 김집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충남 논산 연산면에 있는 돈암서원은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 그리고 송시열과 송준길을 함께 모시고 있다.

냈으며, 亂後에는 국가의 再造와 사회의 안정을 걱정했던 학자로 생활하였다.

兩亂 後에 제시된 사회안정책으로서 禮治가 갖는 효과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가정과 사회질서를 이끄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喪葬祭禮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家禮가 儒敎式을 따르고 있는 것은 長生·集의 예학과 주자가례를 조선사회에 맞게 정착시킨 결과로도 볼 수 있다.

### Ⅲ. 光山金氏 文元公派 滄洲子孫의 淸州 世居와 金元澤

巨木이 된 父祖의 後代로서 學行이 높은 인물이 배출되고, 官運이 지속되는 일은 드문 일인데 沙溪의 자손들은 예외였다. 高官 顯職이 연달아 나왔고, 학문이 끊이지 않았다. 김장생은 8남 5녀를 두었다. 첫째가 유명한 集이고, 둘째가 槃이었다. 반은 龜峰 宋翼弼에게 배우고 1624년 문과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아갔다. 광해군 때는 많은 선비들의 앞장에 서서 都邑을 옮겨야 한다는 논의를 저지시키기도 했다. 吏曹銓郎을 역임하고 사간원 대사간 등 三司의 長을 맡았는데, 병자호란을 맞아서는 남한산성에 인조를 호종해서 들어갔다. 이때 서씨부인은 국란의 소식을 듣고 강화도에 피난 가서 있으면서 적의 칼날이 육박해오자 자결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청주의 광산김씨는 滄洲子孫 系統이다. 창주는 바로 반의 3남 중 益熙의 號이다. 그 계보를 자세히 들면 다음과 같다.

29세 益熙 1610~1656 (인조 - 효종)

字 仲文, 號 滄洲, 諡號 文貞公, 遺稿

1633(인조 11) 문과

이조판서, 홍문과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영의정 追贈

墓 충남 대덕군 탄동면 사모리

配 한산이씨 1609~1660, 貞敬夫人 追贈

30세 萬均 1631~1675 (효종 - 현종- 숙종)

字 正平, 號 梨湖

1654(효종 5) 문과

예문과 검열, 세자시강원 보덕, 승문원 좌부승지

이조판서 追贈

墓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목리

配 연안이씨 1631~1696, 貞夫人 追贈

31세 鎭玉 1659~1736 (숙종 - 영조)

字 伯溫, 號 韞齋

안동부사, 경주 부윤, 호조 참의, 동부승지, 강원감사

좌찬성 追贈

墓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목리

配 연안이씨 1657~1732, 貞夫人 追贈

32세 元澤 1683~1766 (숙종 - 영조)

字 仁叟, 號 四九齋, 諡號 孝靖公

청주목사, 한성부 관운

墓 청주시 산남동 산 22-30

配 청송심씨, 貞敬夫人 追贈

33세 相德 1711~1727

字 伊進

墓 청주시 산남동 산 22-67

配 한산이씨 1712~1772

相福 1714~1782

字 仲受, 號 稷下 自然

이조 호조 예조판서, 한성판윤, 우의정, 영의정

相直 1716~1803

字 養汝, 號 恥齋

참봉, 사복시 관관

墓 청주시 산남동 산 22-67

配 여산송씨, 1714~1737

配 완산이씨, 1722~1792

相肅 1717~1792

字 季潤, 號 坯窩 草樓

장예원 봉사, 공조좌랑, 낭천현감, 양근군수

공조정랑, 첨지중추부사

墓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안산

配 파평윤씨 1718~1741, 淑夫人

配 함평이씨 1728~1797

益熙는 1627년(인조 5) 18세의 弱冠 進士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1633년(인조 11)에 문과에 급제한 후 世子侍講院 司書, 弘文館 修撰을 지내고 弘文館 敎理로 있다가 淸軍이 서울에 접근하자 아버지 반과 함께 인조를 扈從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장생과 집·반 그리고 익회에 이르기까지 이 가문은 한결같이 斥和論의 중심에 있었다. 崇明排淸을 유학의 가르침을 지키는 기본으로 생각한 것이었다. 그래서 호란을 맞아서 반과 익회는 인조를 扈從하였고, 남한산성의 항전을 촉구하는 督戰御使로서 활약하기도 해서 효종의 북벌론에 적극 찬동하는 동지가 되었다. 집은 孝宗이 즉위하여 功西의 領議政 金自點 등이 罷職되자 淸西의 金尙憲 등과 함께 중용되어서 禮曹參判과 司憲府 大司憲을 거쳐 吏曹判書가 되어 北伐을 계획했다.

따라서 익회는 孝宗代에 조정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된다. 1649년 효종 즉위년부터 1656년 효종 7년에 이르기까지 承旨·大司諫·都承旨·吏曹判書·大司憲 그리고 강원감사를 역임한 후 이조판서와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을 지냈다.

30세 萬均은 宋時烈的 문인으로, 1654년에 정시문과에 급제해서 정언·수찬·검토관·부교리·교리 등을 거쳐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 역량이 있는 문관이 밟는 현직을 연이어서 정석대로 올라갔다. 서북 각 고을이 使行에 따르는 경비·사역 부담이 과중한 것을 상소하고 그 시정을 건의한 바 있었고, 1672년에는 승지를 역임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承旨公으로 호칭하고 있다.

광산김씨 一門 중 청주와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은 31세 金鎭玉이다. 진옥은 外官職을 주로 역임했는데 1700년(숙종 26) 四山監役으로 시작해서 副司果·掌樂院 主簿·司憲府 監察을 거쳐 1703년 光山縣監으로 임명되었으나 大邑의 守牧을 맡은 경험이 없었고 相避에 걸려서 부임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龍潭縣令으로 나간 뒤에는 拔群의 능력을 발휘해서<sup>14)</sup> 이후 비중이 큰 군현의 지방관을 잇달아 맡게 된다.

1709년(숙종 35) 3월에는 坡州牧使로 나갔으나 10월에 병으로 물러났다가 1710년 4월 淸州牧使를 제수 받고 5월 29일 왕에게 하직인사를 한 후 부임하였다. 1715년에는 羅州牧使, 1718년에는 水原府使, 1720년에는 安東府使로 나아갔다. 안동부는 본디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라고 칭해지는 곳으로 土豪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이때 고질병을 심히 앓았다. 그래서 1722년 慶州府尹에 임명되자 건강하지 못한 사정을 알려서 스스로 교체하도록 했고 부임하지 않았다.<sup>15)</sup>

오래 관직에서 떠나 있을 때 좌의정 閔鎭遠이 名賢의 후손인 진옥의 앞날을 우려해서 크게 쓸 것을 주청하였다.<sup>16)</sup> 그 이후 내직인 동부승지로 발탁되는데, 영조 1년 7월의 기사

14) 『承政院日記』 숙종 32년 6월 6일. “龍潭縣令金鎭玉段, 民間徭役, 從便蠲減, 大同田稅, 皆自官備, 抄出飢民, 分給賑穀, 一境愛戴, 稱頌不已 --- 其善治善賑, 祛弊蠲役之政, 誠爲可嘉, 不無褒賞之道”

15) 『承政院日記』 경종 2년 3월 9일. “朴彙登, 以吏曹言啓曰, 新除授慶州府尹金鎭玉戶奴呈狀內, 奴矣上典, 有沈痼之疾, 前任安東時, 受由來在楸下, 方爲辭遞之計, 千萬意外, 忽承慶州新除, 仍有除朝辭之命, 而行役之餘, 病狀添劇, 委頓床席, 廢食涔涔, 旬月之間, 決無自力赴任之勢, 斯速入啓處置云。慶州以嶺南雄府, 曠官亦已許久, 金鎭玉病狀, 未能卽速赴任, 則有難等待其差復, 慶州府尹金鎭玉, 依近例罷黜, 何如. 傳曰, 允”

16) 『承政院日記』 영조 원년 5월 13일. “閔鎭遠又曰, 前府使金鎭玉, 以名賢後孫爲儕輩所推重. 雖未能決科, 前

“金鎮玉은 門閥이나 재주를 세상에서 모두 추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니”하는 기록을 보면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 같다. 그리고 1725년 여주목사·1726년 호조참의·1727년 강원감사·1729년 호조참의를 맡게 된다.

1714년 숙종 40년 7월 4일의 실록 기사를 보면, 忠淸道 觀察使가 賑政을 마치고 올린 狀啓에 의해 淸州牧使 金鎮玉의 賞典을 논하여 資級을 올릴 것을 명하는 기사가 나온다. 1718년 숙종 44년 5월에는 김진옥은 수원 부사가 되었다.

32세 金元澤은 1739년(영조 15) 2월에 蔭職으로 아버지의 첫 관직이었던 四山 監役に 임명되어 仕宦을 시작했다. 부친의 임지에 나아갈 때 陪行하였던 元澤은 文科를 거치지 않아서 뒤늦은 나이에 監造官 監役·內贍寺 主簿·掌樂院 主簿·掌隸院 司評 등 內職의 下品 관직을 역임하며 실무를 보게 된다.

그러다가 外職에 나가게 되는데, 1741년(영조 17) 11월 25일에는 新寧縣監으로 임명받았고, 1745년(영조 21) 1월 13일 全州判官이 되었으며, 1747년(영조 23) 7월 30일 麻田郡守를 제수 받았으나 不赴했다. 이해 9월 28일 5품관직인 敦寧府 判官으로, 1748년 3월 14일에는 尙衣院 僉正이 되었으며, 5월 12일에는 정4품관이 맡는 廣興倉 守가 되었다.

나이 67세가 된 1748년(영조 24) 9월 30일에는 淸州牧使로 임명되어 11월 2일 영조에게 下直인사를 하고 부임하였다. 목사 재임시에는 拱北樓<sup>17)</sup>를 중수하였다. 청주목사로 있을 때 보리이삭이 갈라진 것을 발견해서 충청감사와 상의하고 吉兆로 여겨 국왕에게 상서로운 징조라고 상소를 올렸으나 지나친 것이라고 해서 견책을 받았다.

1750년 1월 26일에는 다시 宗簿寺 直長으로 임명되었고, 1751년 7월 26일에는 掌樂院 正이 되었다.<sup>18)</sup> 다음 해 1월 11일 藥房의 세명의 提調들이 入侍해서 말을 나누는 중에 영조가 김원택에 관해 언급하는데 이때 그 아들들이 거론된다.<sup>19)</sup> 相福과 相直이 그 아들들이고, 상직은 글을 잘한다는 말이였다. 원택이 나이가 많아져서 出仕를 했기 때문에 아들들과 같은 시기에 관원으로 있었고, 뛰어난 역량이 있었던 아들로 인해 영조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품계와 벼슬도 오르게 되어, 1752년(영조 28) 3월 21일에는 五衛將 직함을 받았고 10월 10일에는 정3품 당상관인 敦寧府 都正이 된다.

1755년(영조 31) 7월 11일에는 종2품직인 掌隸院 判決事를 맡게 된다. 원택은 辭職疏에서 蔭吏로서 나이가 많고 병이 있어 官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사양을 하나 영조가 “사직을 하지 말고 조속히 관직을 맡아보라.”는 영을 내렸다. 1756년 10월 9일에는 한성부 右尹으로 제수되었다. 이때도 2품관까지 오른 것도 過濫하고, 訟事를 판결하는 중임은 맡기 어렵고 여름에 毒腫을 겪어 咳喘이 우려된다고 사직을 청하였으나 영조의 만류로 이루지 못하였다.

1757년 6월 21일에는 兵曹에서 口傳政事로 綾安君을 都摠管으로 삼고 金元澤을 포함하여

---

後治郡, 皆有聲績, 年紀亦不至甚老。其風力足以按藩, 曾在庚申, --- 何如。上曰, 依爲之”

17) 공북루란 이름을 붙인 정자는 청주와 함께 수원성·공주성·전주성에도 있다. 공주 雙樹山城에 있는 공북루는 장엄하고 화려하다는 평이 있고, 전주에 있는 공북루는 望闕禮를 행하던 곳이다.

18)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7월 26일. "掌樂正金元澤 年七十, 以前承旨金相福之父, 加資事承傳"

19)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9월 10일. "壬申九月初十日辰時, 上御克綏齋。藥房三提調入診入侍時, 都提調金若魯, 提調元景夏, 副提調金光世 --- 上曰, 金元澤向日見之, 而貌似少矣。景夏曰, 金相福·相直, 是其子也。相直善文云矣"

南泰會·田雲祥 세 사람을 副總管으로 선임하였다. 1959년(영조 35) 7월 1일에는 知義禁府事<sup>20)</sup>에 제수되었다. 1762년 4월 24일에는 공조참판에 올랐다. 그때마다 아들인 相福이 거론되었다. 이를테면 “金元澤을 공조 참판으로 삼았는데, 김원택은 바로 金相福의 아버지로서 蔭官으로 진용된 것이다.”는 내용이다. 1763년(영조 39)에는 知敦寧府事に 임명되었다.

1765년(영조 41) 11월 2일에는 늙은 아버지가 있는 신하에게 술잔을 내려서 장수하도록 빌게 하는 의식이 있었다. 김상복은 고령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현임 대신이라서 실록에도 그 이름이 오르는 영예를 받았다.<sup>21)</sup>

임금이 지난달에 잔을 받은 뒤에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짐작하는 뜻을 미루어, 여러 신하로서 늙은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 술잔을 베풀어 그 아버지의 장수를 빌도록 명하고, 卿宰로부터 侍從에 이르기까지 나이 70살이 된 자에게 官에서 쌀과 고기를 지급하여 그 비용을 보조하게 했다. 이때 좌의정 金相福의 아비 金元澤이 나이 80을 넘었는데, 임금이 그 잔치 배움을 듣고 四言 2句를 손수 써서 史官에게 명하여 그 집에 가서 전하게 하니, 김상복이 箋文을 올려 陳謝하였다. 이에 여러 신하의 집에서 날을 나누어 잔치를 베풀고, 비록 나이가 70에 미치지 않은 자들도 또한 所聞을 전해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여향간의 백성들도 또한 모두 이를 본따서 管絃의 소리가 곳곳마다 연이어 들리니, 이때에 일컫기를 太平盛事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적으나, 살갓은 심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사람들이 혹 나의 덕을 힘입어 國人이 장수를 누리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 말은 진실로 우습다.” 하니, 元仁孫이 말하기를, “옛날에 태평 성세[春臺壽域]라 일컬었으니, 이치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였다.

1766년(영조 42) 7월 21일에는 정2품관인 漢城府 判尹에 임명되었다. 이것은 80이 넘는 관원을 임명한 것으로 드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상 이 사례는 영조가 원택의 아들 상복을 깊이 신임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심지어 영조는 궁을 나와서 서울 시가를 다니며 원택의 집을 확인하는 관심까지 보이고 있었다.<sup>22)</sup>

그렇지만 한성부 관윤은 격무가 예상되고 소송이 끊이지 않는 자리라서 84세의 고령의 관료가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23일 영의정 洪鳳漢이 직접 영조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어서 한성부 관윤을 許遞<sup>23)</sup>토록 하였다.

20) 『朝鮮王朝實錄』 英祖實錄, 1759(영조 35) 7월 1일. “朔己酉/以徐命臣爲大司憲、李得宗爲大司諫、李基敬爲江原監司、李彝章爲咸鏡監司、金元澤爲知義禁、李殷春爲北兵使”

21) 김상복은 3년상을 마친 후인 1769년에 쓴 비문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乙酉冬 上受爵于群臣 賜米肉于臣下之有老親者 俾各爲壽 不肖首蒙”

22)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윤6월 25일. “上具遠遊冠·絳紗袍, 以乘輿出社壇門, 仍爲歷臨懿昭廟出社門時。上曰, 金元澤之家, 在近處予 諸臣曰, 社門外右邊第二家也”

서울에 있을 때 원택의 집은 경복궁과 가까운 사직동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영조가 미복으로 경복궁을 나올 때 향했던 곳은 懿昭廟였는데 사직동을 지나가는 곳이다. 또 후술하는 바와 같이, 4남 상속의 필체인 稷下體는 社稷洞에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23) 『朝鮮王朝實錄』 英祖實錄, 1766년 7월 21일. “辛卯/內局入診。領議政洪鳳漢曰: “金元澤, 以原任大臣之父, 享大耋致上卿, 朝家不必責以職事。 詞訟尤難, 虛帶判尹, 本職請許遞。” 允之, 元澤, 相福之父也”

“金元澤은 原任大臣의 아버지인데 大耋을 누리고 上卿에 이르렀으니, 朝家에서 職事를 책임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詞訟은 더욱 어려운데 判官을 헛되이 띠고 있으니, 청컨대 본직을 遞差하소서.” 하여, 이를 윤허하였으니, 김원택은 金相福의 아버지이다.

그해 11월 26일 김원택이 卒逝하였다. 이에 法典에 따라 의정부 영의정을 追贈하였다.<sup>24)</sup> 김원택은 청주 산남에 장례를 지냈다. 아들이 정승 반열에 있는 고위 관직자가 서거해서 지내는 장례는 성대하였다.<sup>25)</sup> 碑文에 기록한 葬地는 청주 경내 서남쪽 십리 못되는 원흥리 마을이다.<sup>26)</sup>

#### IV. 金元澤의 아들 4兄弟와 仕宦

김원택은 부인 청송심씨와 사이에 아들 4형제를 두었다. 맏아들 상덕은 早沒하였고, 둘째는 상복, 셋째는 상직, 넷째는 상숙이다. 이 형제들은 대단한 능력들을 발휘한 인물들이었다.

우선 2남 相福은 1740년(영조 16) 알성시에 乙科 1위로 급제를 한 이후 영조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翰林에 擧進<sup>27)</sup>되어 영조의 近臣으로 지내게 된다. 三司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정3품 당상관에 올라 이조·호조·예조·병조의 參議를 거치고 禮曹參判 등을 지냈다. 1760년(영조36)에는 예문관 제학·이조판서에 임명되었고, 이어 호조판서·예조판서·한성부 판윤·홍문관 제학을 지냈다.

상복에 대한 영조의 신임은 매우 컸다. 1763년 11월 右議政에 임명된 이후 1772년에 領議政까지 올라서 무려 14년간 정승을 지낸 사실을 보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80이 넘는 상복의 親父를 의금부와 돈녕부의 고위직에 임명하고 한성부 판윤을 제수하는 것은 상복에 대한 신임이 없으면 해명이 되지 않는다. 상복의 仕宦과 晩年の 굴곡은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3남 相直은 뛰어난 문장으로 기행문을 썼던 여행가로 당대에 이름이 난 인물이었다. 1743년(영조 19) 가을 28세의 나이에 서울을 출발해서 경상도 영천의 銀海寺를 유람하고 「遊銀海記」를 썼다. 다음해는 서울에서 남한산성과 죽령을 거쳐 경상도 일대를 유람하고 「南遊記」를 썼다. 1751년에는 36세로 강원도 일대를 유람하며 금강산 기행을 쓴 日錄인 「東遊錄」을 썼다. 여행한 일정과 보고 들은 풍물을 자세히 적어서 읽은 이들에게 감명을 준 듯하다. 1752년에 김원택의 아들 김상직이 글을 잘 쓴다고 영조에게 말한 元景夏<sup>28)</sup>도 이들 기행문을

24)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11월 27일자. “判尹金元澤贈領相, 兼帶判府事金相福考, 依法典追贈”

25) 『조선왕조실록』 영조 42년(1766) 11월 26일자. “禮曹에서 아뢰기를, ‘判府事 金相福이 親喪을 당하였으니, 致弔·致賻·護喪·給軍을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거행하소서.’ 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26) 碑文, “淸州治之 西南不十里 而里名元興”

27)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10월 15일자. “又以春秋館郎廳, 以領·監事意啓曰, 今日以新薦翰林取才事出令矣。被薦人金相福·鄭純儉, 稱以在外, 不卽上來, 新進怠慢之習, 誠甚可駭, 竝姑先從重推考, 使之卽速上來應講, 何如? 傳曰, 允”

28) 『조선왕조실록』 영조

읽은 것으로 보인다.

상직의 관운은 좋지 않았다. 1750년에 35세의 나이로 진사가 되는데 그때 아버지 김원택은 통훈대부 청주진병마첨절제사로 있었다.<sup>29)</sup> 1751년(영조 27) 6월 25일에는, 동생들보다 늦게, 吏曹의 口傳政事로 懿陵參奉에 임명된다. 그 이후 54세의 늦은 나이에 司僕寺 종5품 관직인 判官을 맡았는데 그 다음해인 1770년(영조 46)에 큰 사건이 벌어졌다.<sup>30)</sup>

사복시의 하인 仲義가 영조의 陵幸時 분실한 鐵印을 몰래 감추어 둔 것이 발각이 난 일이었다. 내시가 잃어버린 이 鐵印은 왕실에서 삼백년이나 내려온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찾을 때는 내놓지 않다가 현상금을 내놓은 다음에 증의가 가지고 와서 바쳤다. 그런데 증의는 상직의 私賤 출신이었다. 그래서 국왕을 수행까지 하는 사복시의 하인을 私賤으로 추천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영조가 친히 상직을 문초해서 그 잘못을 추궁하였다. 결국 상직은 機張으로 유배를 당하였다.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사복시 판관으로 있을 때도 기행문을 쓴 것이 확인된다. 영조가 아버지 숙종의 능인 明陵에 행차할 때 수행한 내용을 「嚴程記行」에 기록해서 陵幸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상직이 쓴 遺稿는 4권 3책인 『恥齋遺稿』로 묶여졌다. 여기에는 형과 달리 仕宦에 실패한 고독한 마음을 전하는 시문뿐 아니라 기행문들이 실려있다.<sup>31)</sup>

4남 相肅은 名筆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1744년(영조 20)에 진사가 되고, 1752년에 명릉참봉에 제수된 이후 장예원봉사·사옹원봉사·한성부 참군·종부시직장·공조좌랑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외직으로 나가 낭천현감과 양근군수를 지냈다.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1764년 익위사사어·사옹원주부·공조정랑을 거쳐 첨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29) 『司馬榜目』

30)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9월 5일. “庚寅九月初五日巳時, 上御延和門外. 殿座入侍時, 行都承旨金光國, 左承旨金致讓, 右承旨邊得讓, 左副承旨姜始顯, 右副承旨任希教, 同副承旨李正吾, 記事官金梯行, 假注書金重燮, 記事官俞漢謹·吳鼎源, 以次進伏於通陽門外, 上具翼善冠·袞龍袍, 自通陽門出, 至延和門外降輿殿座後, 上曰, 司僕巨乞, 誰所定乎? 判官所掌也. 上曰, 拿入, 前排入之. 上曰, 與判官同爲拿入者, 誰也? 曰, 徐有濩也. 上曰, 仲義率去拿入, 而何爲入來乎? 此是宣傳官不善舉行之致, 宣傳官記過, 太僕方有事, 僉正判官當待令, 而偃臥其家, 判官一併拿入. 拿入後, 上曰, 誰也? 判官則金相直, 僉正李聖模, 而聖模則家遠未及來, 故巡令手伏地矣. 上曰, 來則拿入, 厥漢之得來, 亦可貴矣. 歸後視之則不繫, 故咨且以納矣. 其曰, 不見子云者誠飾詐矣. 過延曙時, 日已昏, 印雖在地, 亦何能知乎? 命騎判杖問於建陽門外, 景祐棍問後進伏曰, 始待日明時得之矣. 上曰, 三百年流來之物, 所重與寶無異. 光國曰, 此是莫重之物, 故雖欲投諸水火而不能矣. 掩置則誠有罪, 而不投水火者, 誠爲萬幸也. 騎判曰, 渠以爲得之沙峴, 裹以紫袱, 故以爲饜?, 留置其家矣. 今聞闕內索之云, 故問於養馬, 始爲詳知而納之云矣. 二十度則已施, 而直放太輕矣. 上曰, 加十度而放之, 又生一五得也, 其爲誰所率去也? 曰, 主簿之雨裝軍也. 其時隨金相直而去者也. 上曰, 厥漢, 予則已赦, 使之直告之意傳之也. 兵曹佐郎金光燾, 承命出傳于騎判. 上曰, 太僕, 所重, 若何, 而苟差此等之屬乎? 此後勿爲顏私, 各別擇差, 可也. 上問相直曰, 巨乞, 誰所差也? 相直曰, 南廡之卒, 僉正差焉, 其餘則判官差焉. 上曰, 予以爲太僕典僕爲之矣, 雇人爲之者, 何也? 亦何以私賤爲之乎? 相直曰, 人名不足則自下雇人矣. 上曰, 其中有私賤雇立者, 汝焉敢欺君? 相直曰, 鄉軍有?, 則以雇立爲之矣. 上曰, 仲義, 汝所定乎? 相直曰, 不入員役者, 臣亦不知矣. 上曰, 太僕之卒, 若非隨官則隨駕, 汝何以雜人苟充乎? 此亦申飭汝輩之一大機, 以此依法, 除算杖而勸杖, 可也. 始顯曰, 愚迷之民, 似不能詳察而然矣. 上曰, 承旨極爲非矣, 遞差, 可也. 左副承旨姜始顯遞差事. 出榻教 上曰, 仲義之索子後始納者此一節, 爲先從實承款, 所得之處, 亦非其處, 亦爲問奏, 相直決棍五度後, 使之拿出. 上曰, 此後以太僕典僕爲之, 若入私賤, 當用軍律, 此後各別嚴飭, 宣傳官拿入. 上曰, 汝等, 厥文就武, 而亦不能傳命, 爲兩班之子如此, 將焉用之? 分揀拿出, 李聖模拿入. 上曰, 判官既已決棍, 汝則分揀, 汝之八字, 好矣. 命秋判入侍事”

31) 『恥齋遺稿』 규장각 古3428-486.

상숙은 글씨에서 대성하여 ‘稷下體’라는 고유의 서체를 완성하였다. 직하체는 서울에 살 때 社稷洞에 집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sup>32)</sup> 상숙의 서예작품으로 알려진 것은 『思美人曲帖』이 유명하다. 1764년(영조 40)에 松江 鄭澈(1536-1593)의 「사미인곡」, 「속미인곡」을 漢譯한 이 책은 後記<sup>33)</sup>와 함께 원래의 국문가사를 수록해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sup>34)</sup>

상숙은 歌謠에 관심이 많았던 듯 보인다. 『坯窩歌謠』<sup>35)</sup>에는 「사미인곡」 「속미인곡」의 漢譯과 더불어 ‘海東俚謠’라는 표제 아래 민간노래 2수가 실려 있으며, 「相思曲」 「望夫詞」 「悔懊曲」 「白頭吟」과 같은 樂府調 노래들도 수록되어 있다. 상숙의 한역 가요들은 『續日知錄』에도 실려 있다.

상숙의 서예작품은 몇 편이 알려져 있다. 「雪嶽山神興寺事蹟碑銘」은 江原道 襄陽郡 雪嶽山에 있는 神興寺의 사적을 적은 것이다. 咸鏡道 觀察使 趙暉이 지은 글을 상숙이 쓴 것으로 사찰이 위치한 雪嶽山 전체에 관해 해설하고 고증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과주에 있는 「頌相皇甫仁表文」 「參判李喜朝表文」과 강원도 홍천에 있는 「壽陀寺 瑞谷堂禪師塔碑文」, 또 전라도 순천에 있는 「柏庵堂大禪師碑銘」이 상숙의 작품이다.

「柏庵堂大禪師碑銘」은 영의정을 지낸 상숙의 형 상복이 글을 짓고 상숙이 글씨를 쓴 것이다. 상복과 상숙이 불교와 관련이 있었던 것은 수타사 사리탑비로 알 수 있다. 수타사에는 榮淵(1702~1768)이라는 禪僧이 있었는데 호를 瑞谷이라고 했다. 17세에 출가하여 당대의 善知識들인 思岸·覺惠·斗玉·善快·圓悟 등을 참방해서 선과 교리를 배웠다. 만년에는 教를 버리고 禪을 체득하였으며 法席을 열어 널리 가르쳤다. 홍천 수타사에서 입적한 후 다비식을 하였는데 사리 2과와 영골 1매를 수습하여 사리 1과는 강원도 횡성 鳳腹寺에 탑을 세워 안치하고 나머지 사리 1과와 영골은 수타사에 안치하였다. 金相福의 글과 金相肅의 글씨를 받아 수타사에 사리탑비를 세운 것은 바로 다음해였다. 僧 榮然과 평소에 교류가 없었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2남인 金相福은 영조의 신임을 받았다. 벼슬길은 비교적 순탄해서 三司를 모두 거친 다음 이조·호조·예조·병조참의를 역임하고 예문관 제학과 이조판서에 임명되었고 이어 호조판서·예조판서·한성판윤·홍문관제학을 지냈다. 1763년 11월에는 우의정에 올랐고, 1772년에는 영의정이 되었는데 영조대에 14년간을 정승으로 지냈다.

民生을 위한 김상복의 노력은 실록 기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여러 건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김상복이 良役變通을 논하면서 “백성들이 모두 아들을 낳으면 서로 위로하고 딸을 낳으면 서로 기뻐하는” 정상을 영조에게 아뢰고 冤氣가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자 영조는 즉각 조치하여 隣徵 族徵과 白骨徵布와 黃口簽丁을 금지하고 지방 수령의 연말 殿最 등에서 이를 평가 기준을 삼겠다고 하였다.<sup>36)</sup>

32) 崔慶春, 「坯窩 金相肅 研究 -序論을 中心으로-」 『漢文學研究』, 啓明漢文學會, 2002. 2

33) 漢譯의 마지막 부분에 한역의 동기를 기록한 後記가 있는데 여기에 ‘甲申季夏 窩散人書’라고 되어 있어 1764년에 쓴 김상숙의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34) 『思美人曲帖』, 가람古 811.05-J462sm. 김영진의 「해제」 참고.

35) 이 책은 김상숙의 친필본으로 성균관대에 소장되어 있다.

김상복은 탕평책을 내세운 영조대의 중신이었지만 스스로 봉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미 翰林에 있을 때부터 黨人을 천거하는 일로 파직을 당하기도 했는데<sup>37)</sup> 예문관 검열을 임용하는 圈點에도 널리 사람을 취하지 않아 처벌받기도 하였다.<sup>38)</sup> 김상복은 대개 公務로 인해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여러 차례 파직되었으면서도 그때마다 재기하였다. 소장관료 당시부터 의정에 오른 뒤까지 경연에서 말을 잘못하는 舌禍 등에 의해 직을 떠난 경우가 많았지만 영조의 신임에 의해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해왔다.

김원복은 사도세자의 장인이면서 뒷날 왕위에 오른 정조의 외할아버지인 洪鳳漢과 동지로 지냈다. 우의정이 되는 것도 좌의정이었던 洪봉한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다.<sup>39)</sup> 그는 이른바 北黨에 속하여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金龜柱를 배척하는 데 동참하였다. 김귀주는 영조 繼妃인 정순황후의 친정 인물이었다.

1775년에는 洪봉한의 아우인 權臣 洪麟漢을 비난하는 쪽에 섰다. 그러나 洪인한과 和緩翁主의 아들인 鄭厚謙이 왕세손의 대리청정을 막고 세손을 해치려 한다고 徐命善이 상소하자 영조가 대신들과 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상복이 모호하게 답변을 하였다.<sup>40)</sup> 이 사건은 김상복의 말년에 큰 재앙을 미치게 하였다.

즉, 11월 30일의 경연에서 영조가 세손에게 조정 대신의 당색과 적합한 관직을 알게 해서 정사에 익숙하게 해야 한다고 하자 洪인한이 “이런 일은 동궁께서 알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전 영의정 韓翼謨도 왕이 인사에서 三望을 정했는데 이를 首望을 副望으로 하는 폐단을 나올 수 있겠다고 하자 “그럴 이치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리청정하는 세손의 위치를 흔드는 발언이었다. 경연 자리에 같이 있던 세손은 할아버지 영조에게 상소를 올려 두 대신이 “알게 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고 했다는 말을 쓰면서 고통스런 마음을 전하였다.

서명선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리자 영조가 이 문제를 중시하여 대신들을 불러 두 편의 상소문을 읽고 그 是非를 물었다. 영중추부사 김상복은 영조가 거듭 물었어도 당시 듣지 못했다고 모호하게 말하다가 “어찌 그리 구차스러운가?”하고 지적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세손을 걱정하는 영조에 의해 한익모 洪인한과 더불어 김상복은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김상복은 ‘洪麟漢은 外家の 가까운 친척이니, 洪인한을 위하는 것은 곧 동궁의 외가를 위하는 것이고 동궁의 외가를 위하는 것은 곧 동궁을 위하는 것이다.’<sup>41)</sup>라고 말했고 한다. 이 말을 전하면서 정조는 김상복이 “범한 죄를 따져 보면 역적의 패거리가 되어 역적을 비호한 것이 아니면 부추긴 자이다. 그날 밤에 입시하였는데 이 때문에 애태우던 정경을 생각하면

36) 『조선왕조실록』 영조 21년(1745) 1월 18일자.

37) 『조선왕조실록』 영조 17년(1741) 4월 29일자.

38) 『조선왕조실록』 영조 22년(1746) 7월 28일자.

39) 『조선왕조실록』 영조 39년(1763) 7월 4일자.

40) 『조선왕조실록』 영조 51년(1775) 12월 3일자. 사관은 이를 전하며, “삼가 상고하건대, 鄭厚謙 母자가 洪인한 의 여러 적들을 끼고서 내외에서 요사한 일을 선동하여 事變을 헤아리기 어려웠다.”고 했는데 김상복은 그 黨與로 간주된 것이다.

41) 『조선왕조실록』 정조 즉위년(1776) 9월 6일자.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영조가 승하할 때 김상복은 관직에 복귀해서 다시 영중추부사로 있었다. 정조의 즉위 의식도 주관하였지만 곧 三司의 습啓<sup>42)</sup> 등 판중추부사 한익모와 영중추부사 김상복을 매도하는 주장이 빗발치게 된다. 영중추부사 김상복을 비롯해서 영의정 金陽澤, 판중추부사 이은, 우의정 鄭存謙은 삭탈관직되었고, 좌의정 金尙喆은 파직되었다.<sup>43)</sup> 그리고 이어서 한익모는 풍천부에 정배되었고, 김상복을 평해군에 귀양보냈다.

정조의 깊은 원함과 삼사의 탄핵으로 인해 귀양을 갔지만 왕권이 안정되자 곧 선왕의 중신들은 풀려나게 된다. 김상복은 공주로 이배되었고, 이듬해에는 석방하여 시골로 내려보내도록 하였다.<sup>44)</sup> 이후 김상복은 결성에 은거하여 두문불출하였다.

김상복의 사면은 24년 뒤인 1800년에 이루어졌다.<sup>45)</sup> 이때는 정조 말년으로 사면 단자를 재가해서 金相福의 죄명을 지우게 하는 조치를 한 것이다. 그는 『御製樹德全編』을 편찬하였고, 저서로 『通塞問答』 1책과 「柏庵堂大禪師碑銘」 등이 전해진다. 김상복 개인의 평은 나쁘지 않았다. 평소에 독서인의 자세를 견지해서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고, 죽을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공부를 했다고 한다.

## V. 맺는말

김원택의 4형제는 두 형제씩 청주 산남과 결성으로分居하였다. 상덕과 상직은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산남에 터를 내려서 살았고, 상복은 상숙과 함께 결성에 터를 잡았다.<sup>46)</sup> 일찍 세상을 떠난 상덕은 아들이 없었고, 상복도 딸만 있어서 각각 후사를 잇도록 동생의 아들로 양자를 들였다. 그래서 상직의 아들 斗光이 만형 상덕의 뒤를 잇게 했고, 상숙의 두 아들 중 하나를 상복의 뒤를 잇도록 양자로 입적하였다.<sup>47)</sup>

광산김씨는 조선왕조에서 문과 급제자의 수나 정승과 대제학을 배출한 면에서 두드러져 名家로 손꼽힌다. 조선 초기부터 고종 연간에 이르기까지 宦路가 끊이지 않아 名臣과 學者가 즐비하였다. 이 문중에서 沙溪 金長生의 자손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그 한 가계인 滄洲 一門이 淸州에 정착해서 세거해왔다.

淸州 山南에 幽宅을 마련한 金元澤과 그의 4형제에 관해서 알려주는 역사기록은 거의 없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의 지역역사에서 김원택과 그의 아들들의 기록도 일정한 부분을 차지해야 하지만 전혀 소개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집안의 유택이 있던 山南 元興里가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地形이 變改될 때 비로소 그 사실을 찾게 된 것은 지역사 연구에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42) 『승정원일기』 정조 2년(1778) 5월 4일자.

43) 『승정원일기』 정조 1년(1776) 6월 25일자.

44) 『승정원일기』 정조 1년(1777) 5월 25일자.

45) 『승정원일기』 정조 24년(1800) 2월 3일자.

46) 형제가 청주와 결성으로分居하게 된 까닭을 밝힌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47) 김상복이 지은 「김원택비문」

이 家系の 확인은 京官으로 활약한 청주민의 역사로서도 필요하고, 18세기의 지역사회사를 보완하는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원흥리의 광산김씨가를 조사하게 되면 생활사의 중요한 자료를 얻게 된다. 마을 뒷산에 자리 잡은 선대의 무덤과 세거지와와의 관계, 그리고 동남향으로 내려가면서 펼쳐진 산남의 경작지와 양반가의 경제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육중한 棺槨 속에 오래 간직한 380여점의 복식은 김원택 복식(장의 등 102점), 청송 심씨 복식(당의 등 83점), 한산이씨(저고리 등 63점), 김상직(포 등 93점), 전주이씨(저고리 등 48점) 모두 389점이다. 금실자수로 된 흥배와 인동초 모란 매화 등의 다양한 무늬가 있는 당의 및 장옷들은 보기에 매우 아름답다. 이 복식들은 조선후기 영조와 정조 시기를 살던 선인들의 문화유산으로서 우리는 이에서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전령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